

## 문화방송의 뉴미디어 방송 전략 및 현황

조 정 구  
문화방송 전 기술본부장

60여년전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는 역동성으로부터 생긴다고 했다. 또 이 창조적 파괴는 기술력과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문화방송이 추구하고 있는 뉴미디어 방송에 대한 대책도 기본적으로 이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방송환경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방송환경의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방송, 통신, 컴퓨터를 결합시킨 새로운 융합 미디어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융합은 지금까지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발전해 오던 여러 종류의 미디어들의 특징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뉴미디어란 이름으로 일반에게 선보이고 있다. 대개의 신규 미디어들은 기존 미디어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선함으로써 그 서비스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멀티미디어의 구현을 그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미디어의 융합은 기존 미디어의 고유 영역의 소멸과 함께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 진입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쟁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신문, 방송 등의 무한 경쟁이 예상되며 각 방송사들은 뉴미디어 방송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방송사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문화방송도 우선 본격적인 인터넷방송의 전개와 내년으로 예정된 디지털위성방송의 원활한 진입에 관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방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부 전략을 수립하여 뉴미디어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로 전송매체의 다양화이다. 종래의 방송은 전파의 회소성에 기인하여 독과점이 유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익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화졌다. 특히 광대역 통신네트워의 확산은 통신네트

워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의 분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터넷 세대의 증가로 인한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문화방송은 기존의 지상파에도 인터넷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에도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도가 완성되면 문화방송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데이터방송의 활성화 방안이다. 문화방송은 작년 2월 국내방송으로는 처음으로 한글자막방송을 시작하였고 현재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자막방송을 부가하여 내 보내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방송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라디오 부가서비스인 '눈으로 보는 라디오(Eyedio)'도 금년 3월경부터는 본 방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FM-DARC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FM방송의 스펙트럼 여유분에 디지털 데이터, 음성신호 등을 다중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웃 일본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한편 디지털지상파방송의 데이터방송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제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방송은 방송사의 서비스의 실시 못지 않게 저렴한 수신기의 보급이 서비스 확산에 중요하므로 이러한 공동 추진은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로는 기존방송의 프로그램 품질을 개선하는 방송시스템의 고도화 추구이다. 이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단순한 작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디지털기술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미디어를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내년 시험방송의 개시에 즈음하여 데이터방송도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방송시스템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문화방송이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도가 바로 종합미디어 센터의 도입이다. 이는 다매체 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디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센터화 한다는 것이 그 기본 구상이다. 즉 테이프리스 기록 매체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 송출 등 방송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방송에서의 기본 인프라이다. 이른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제작환경을 근간으로 대화성을 지닌 서비스까지도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중으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시스템 구축까지 끝낼 예정이며 점차 방송자료, 경영정보와의 연계성도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다행스럽게도 문화방송은 지난 1월말 7개월간의 작업 끝에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중 뉴미디어방송과 관련한 사항들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뉴미디어방송에 관한 구체적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방향은 인터넷방송의 본격 추진과 위성방송의 진입, 디지털 지상파 데이터 방송의 활성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인터넷방송의 본격 추진과 관련하여 전혀 새로운 시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경영진의 구성에서부터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헤드 헌터에 경영진 물색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원리도 창의성과 동기 부여를 최우선 덕목으로 설정,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방송 프로그램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에 적합한 콘텐츠도 새로이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도록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도 여러 뉴미디어에의 방송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확보 대책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새로 설립될 인터넷 관련 독립회사(가칭 MBC인터넷)에서 전담, 추진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화방송의 인터넷 서비스는 기존방송의 홍보와 시청자 서비스 차원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독립회사 출범과 더불어 이러한 기조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시청자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방송을 독립된 미디어로 생각하여 새로운 구상으로 재출발할 것이다. 즉 인터넷 방송을 위주로 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로 그 영역을 확대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방송의 기존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인터넷방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전략은 제휴 모색이다. 인터넷방송은 바로 방송/통신의 융합의 대표적 미디어이다. 그러므로 통신 사업자들의 다양한 차원의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윈-윈 게임의 추구이다. 인터넷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방송국과 이용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품질의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콘텐츠를 보유한 방송사와

네트워크 기업들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 정립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방송이 준비하고 있는 뉴미디어 방송으로 위성방송을 들 수가 있는데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후에 위성방송 추진팀의 인력을 보강하여 본격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성방송과 관련한 사업자로는 한국통신과 위성을 소유하게 되는 위성체 사업자, 채널사업자와 가입자를 연결해 주는 위성방송의 운영 주체인 플랫폼 사업자, 채널사업자와 가입자를 연결해 주는 위성방송의 운영 주체인 플랫폼 사업자, 개별 채널의 운영 주체인 채널 사업자로 나뉘어진다. 현재까지 검토한 계획으로는 채널사업자로서의 위성방송 진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위성방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플랫폼 사업에도 일정 지분을 투자하여 문화방송의 방송 경험을 위성방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1~2개 채널을 운영하다가 위성방송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여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널의 성격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재활용할 수 있는 오락 중심채널과 정보중심, 또는 스포츠 중심 채널로 운용할 계획이다. 위성방송은 시행 초기 일정기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별도 조직보다는 내부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 하고 있다. 시설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확보 등 관련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도 적절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위성방송 가입자가 100만 세대에 도달하면 어느정도 차입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150만 가입자가 확보되면 순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데이콤이 주축이 된 DSM은 위성방송의 출범후 4~5년 후에는 가입자가 1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성 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실시되면 더욱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화방송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데이터방송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방송은 작년 2월 국내 최초로 한글 자막방송을 개시한 바 있다. 또 작년 12월에는 FM부가방송 '눈으로 보는 라디오(Eyedio)'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조만간 본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수도권 방송권역을 올해 중으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가교통정보망의 구축과도 연계하여 서비스가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방송의 출현으로 이를 이용한 데이터방송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문화방송은 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우선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전사

를 비롯한 대의 협력 관계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작년 10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시행한 디지털 지상파 데이터방송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디지털지상파방송의 초기에는 이 데이터방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결합하면 그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뉴미디어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보다 시청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시청자들의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보다도 시청자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방송은 시청자들이 통합된 미디어 환경에서 여

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종합디지털방송의 구현을 뉴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장기적인 방송 서비스의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상당기간 동안은 기존 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 시청자들을 혼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가전이나 통신 등 관련산업계와의 공동보조를 유지하는 방안도 추구할 것이다. 뉴미디어 방송은 그 근간을 이루는 기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서비스 내용도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관련 기술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고함과 아울러 매체 영향력의 확대도 동시에 추구할 생각이다.

## 필자소개



### 조 정 구

- 1969. 2.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1969. 2. (주) 문화방송 입사
- 1988. 6. 방송기술국 TV보도기술부장
- 1990. 3. 영상기술부장, 기술관리부장
- 1992. 4. 기술운영국장(부국장)
- 1995. 2. 기술운영국장
- 1998. 3. MBC미디어텍 사장
- 1999. 3. 기술본부장(이사)
- 2000. 3. 6. 현 중주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